

『상역과해금강경』의 版次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Editions of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각 판의 서지적 특징과 용어 |
| 2. 국역의 배경과 불교계 동향 | 5. 결 언 |
| 3. 『상역과해금강경』의 발행 | <참고문헌> |

< 초 록 >

『상역과해금강경』은 백용성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국역과 해설을 더한 불경 중의 하나이다. 이 저작은 15년에 걸쳐 신활자본인 초판부터 석인본인 4판에 이르기까지 무려 5회나 발행되었다. 그가 시도한 새로운 해설방식은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날 『금강반야바라밀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용성의 국역불경 중에서 5회에 걸쳐 발행된 『상역과해금강경』을 판차별로 소개하였다. 초판은 1924년에 발행되었으나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후에 발행된 판에서 1926년 발행본을 초판으로 명시한 점이 크다. 용성의 생전에 모두 5차례에 걸쳐 발행된 『상역과해금강경』은 1920년대에 발행된 초판과 수정초판, 1930년대에 발행된 재판, 3판, 4판 등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1935년에 발행된 재판은 3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발행되었으며, 유일하게 가격표시가 있는 판매용이었다. 특히 이 재판에서는 많은 용어들을 대각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후 발행된 3판과 4판은 모두 재판을 대본으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要語: 용성, 진종, 백상규,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금강경, 윤관, 대각교, 삼장역회, 한성도서, 해영사, 대동, 영흥

< ABSTRACT >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is one of many translated and explained Buddhist scriptures by Baek Yong-seong that contributed to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From the first edition printed in “new western metal type” to the fourth edition “lithographed book”, this work was published five times over the course of 15 years. His original method of explanation shows his identity and character. Moreover, this work is valuable in that it became the foundation of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ranslations in Korean.

This paper introduces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in order of edition, which were published over the course of five times. The original edition was printed in 1924 but this was not widely known because the 1926 publication was stated as the “first edition” in the following publications. *Sangyeokgwahae-Geumganggyeong*'s five publications can be divided in two categories - 1920s' first edition and first edition revised printing and 1930s' second, third and fourth edition. The second edition of 1935 was invested by three people and was the only edition that had a price tag for sale. Many terms in this second edition were changed to language used in Taegak-Kyo. The third and fourth editions were originated from the second edition.

Key words: Yongseong, Jinjong, Baek-sanggyu,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aegak-Kyo, Samjang-yeokhoe, Hanseongdoseo, Haeyoungsa, Daedong, Yeonghung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8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u.ac.kr)

투고일: 2019년 11월 18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80집, 169-190,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169>

1. 서 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금강반야경』, 『금강경』으로 더 많이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과 함께 가장 많이 보급된 불경으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등에서 근본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는 핵심경전이다. 그래서 예부터 여러 국내 고승들이 주석서를 찬술하였는데, 그중에서 조선의 涵虛堂 己和가 주석한 『金剛經五家解說誼』는 이후 불교계에서 대중적으로 수용되었다. 한문본과는 달리 언해본 『금강반야바라밀경』도 조선 전기에 간행되었으나 이후 불교의 쇠락과 함께 새로운 언해본은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국역불경의 간행은 20세기에 와서야 白龍城(1864~1940)과 姜在喜(1860~1931) 등에 의해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국역불경을 보급하고자 한 방식은 서로 달랐다. 곧 용성은 자신과 삼장역회가 주축이 되어 신활자본으로 발행한 데 비해 강제회는 자신과 가족, 신도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크기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¹⁾ 강제회의 보급방식은 전통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수 천부씩을 발행한 용성의 적극적인 대중화 노력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국역불경의 대중화는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수량을 신속하게 발행 보급할 수 있는 신활자본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재 국역 불경의 대중화는 용성의 주도로 시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용성이 불경을 국역하여 보급하고자 한 생각은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였다. 곧 타종교 경전은 국역이 되어 있어서 목회자와 신자들이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데 비해 불교경전은 국역본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전부대의운관』에서는 “한자장경이 산과 같이 쌓여 있더라도 (보고 읽지 않으면) 하나의 썩은 물건으로 돌아갈 뿐이므로 자세히 번역하고 과목을 주해하였다.”²⁾고 하였다. 용성은 주요 불경을 삼장역회를 통해 국역하고 발행 보급하였는데, 『상역과해금강경』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용성은 불경 국역을 통해 불교를 시대에 맞게 대중화, 현대화시키며 그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한편 『상역과해금강경』은 독자적인 체제를 갖춘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국한문 해설서로 1924년에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이후 네 차례나 더 발행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행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재판이후의 판권지에서 1926년에 발행된 수정초판을 초판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939년에 서울 창신동의 안양암 주지 이태준과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발행한 4판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 강제회가 주도하여 간행한 한글본 불경은 1912년에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언해는 소자)을 비롯하여 근 30종에 이르며, 목판은 현재 서울 지장암에 현전하고 있다.

2) “『金剛般若波羅密經全部大義論貫』 9. 論今思潮, 『상역과해금강경』 (초판, 서울: 삼장역회, 한성도서, 1924), 8. “然則漢字藏經이 積在如山이라도 歸於一個朽物而已哉인저 … 更以詳譯註解科目하노라.”

그래서 현재 『상역과해금강경』은 모두 세 차례 발행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³⁾ 그러나 전체의 판차가 계통적으로 소개되지 않으면, 『상역과해금강경』의 완성이나 대각교 경전으로서의 용어사용 과정 등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용성의 국역불경 중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발행된 『상역과해금강경』을 판차별로 소개하고, 그 차이도 살핍으로써 용성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역경과정을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국역의 배경과 불교계 동향

용성은 우리나라 전통의 大隱律師의 울맥, 임제로부터 志安大師에 이르는 법맥을 계승한 고승이었다. 더욱이 많은 불경을 국역하거나 또는 저술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한 삼장법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 더욱이 전통적인 수행방법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도봉산 망월사에서 만일참선결사회를 조직하는 등 수행에도 직접 모범을 보였고,⁵⁾ 신도들의 질환을 구제하고자⁶⁾ 한 승려이기도 하였다.

그는 1905년에 『禪門要旨』를 저술한 이후, 1913년에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논박한 『歸源正宗』을 발행하였다. 1922년부터는 삼장역회를 통해 기존의 한역불경들을 한글 또는 鮮漢文으로 국역해 내었다. 곧 1922년에는 『신역대장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선한문 금강경』, 『수능엄경 선한연의』, 『팔상록』 등, 1923년에는 『대방원각경』, 1924년에는 『상역과해금강경』, 1926년에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1928년에는 『팔양경』,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 등, 1930년에는 『각해일륜』, 『대승기신론』 등, 1933년에는 『각설범망경』, 1936년에는 『신역대장경』, 『석가사』 등, 1937년에는 『육자영감대명왕경』, 1938년에는 『천수경』, 1939년에는 『지장보살본원경』 등의 국역 해설본을 발행하였던 것이다.⁷⁾

3) 김호귀, “금강경번역의 계문제,” 『전자불전』 제15집(2013), 8. “1926 초판 4월 29일(1935 재판, 1937 제3판).”

4) 한보광, 『용성선사연구』 (서울: 감로당, 1981), 18-19.

5) 용성이 조직하고 직접 참여한 만일참선결사회에서 작성된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등록문화재 제637호)이 전한다.

6) 『동아일보』 1925년 10월 1일(기미년운동과 조선의 48인(2): 최근 소식의 片片)의 기사에는 봉익동에서 포교활동을 할 때 白膏藥을 직접 제조하여 보급한 사실이 소개되어 있다.

7) 용성조사연구보. 『백용성의 달: 3월의 독립운동가』 ([서울: 백용성의 달 기념행사위원회, 1998).

김광식, 『용성: 한국의 고승 17』 (서울: 민족사, 1999), 267-269.

지관, “龍城祖師 行蹟碑,” 『백용성대중사총서』 제 7집(서울: 동간행위원회, 2016), 341-342. “스님의 著述로는 『禪門要旨』, 『歸源正宗』을 비롯하여 『心造萬有論』, 『修心正路』, 『팔상록』, 『大覺教儀式』, 『大覺教歌集』, 『불문입교문답』, 『覺海日輪』, 『晴空圓日』, 『修心論』, 『釋迦史』, 『極樂路程記』, 『佛教唱歌』, 『大覺源流』, 『教理大典』, 『大覺教兒童教科書』, 『臨終訣』, 『梵網經演義』, 『吾道の眞理』, 『吾道는 覺』, 『龍城禪師語錄』等이고, 譯書로는 『신역대장경』, 『首楞嚴經鮮漢演義』, 『毘金毘羅經』, 『覺頂心觀音正土摠持經』, 『大方廣圓覺經』, 『詳譯科解金剛經』, 『八陽經』, 『조선글화엄경』, 『朝鮮語楞嚴經』, 『六祖壇經』, 『大乘起信論』, 『灌頂伏魔經』, 『覺說梵網經』, 『鮮漢譯大方廣佛華嚴經』, 『六字靈感大明王經』, 『千手經』, 『지장보살본원경』, 『鮮漢文譯禪門撮要』, 『金剛三

용성이 역경과 저술 작업에 착수하게 된 동기는 여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투옥되었을 때 우리말로 된 불경이 없어 통탄한 사실을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⁸⁾ 그리고 “철학, 과학 등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수 십 년을 공부해도 알기 어렵고, 장래에는 무용의 학문이 될 한문보다 조선인에게는 남녀 상중하라도 보면 즉시 아는 조선 글이 적당하며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의 글이 적절할 것”⁹⁾이라며 우리말로 된 서적의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용성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국역하여 발행해야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한글론자였다. 그래서 “내가 만일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 진리연구에 하나의 나침반”¹⁰⁾을 만들 것을 다짐한 뒤 출옥 이후에 이 약속을 실천해내었던 것이다.

물론 국역사업의 동기는 이외에도 “어린 시절 꿈에서 부처님의 咐囑을 받은 사실, 일반 민중을 위한 佛法弘布, 애국심 등”¹¹⁾과 함께 실효성을 우선시하는 그의 현실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의 역경사업은 애국심에 바탕을 두고, 우리말로 된 경전을 통해 대중 교화와 포교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삼장역회를 설립한 점, 단어의 변화와 대화체 번역을 한 점, 체계적이었다는 점, 유통망의 조직을 활용한 점, 광고를 한 점”¹²⁾ 등이 역경과 보급방식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비록 “한자용어를 사용한 부분이 많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불경의 한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¹³⁾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금강반야바라밀경』 국역본은 간경도감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후 이때 와서야 새로운 국역본이 발행되었다. 곧 1922년 1월 16일의 『신역대장경 금강경강의』,¹⁴⁾ 1922년 1월 30일의 『신역대장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선한문)』,¹⁵⁾ 1923년의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전부대의운관』, 1924년의 『상역과해금강경』 등이 그것이다. 이 국역본들은 각각의 특색이 있다.

그 중에서 『상역과해금강경』은 “경문을 전반부 및 후반부로 나누고 科目을 나누어 설정한 점, 경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을 주제로 설정한 점, 경전의 전체에 대하여 대의를 아공과 범공으로 설명하였다는 점”¹⁶⁾ 등이 역경의 특징으로 꼽힌다. 아울러 “禪師의 입장에서 종교 신앙자로서의

昧經』, 『六字大明王經』, 『川老金剛經』 등이며.”

한편 1936년 6월 6일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출판허가는 받았으나 간행되지 못한 미출간 원고본인 『선한역대방광불 화엄경(鮮漢譯大方廣佛華嚴經)』(등록문화재 제630호)도 전하는 등 발행되지 못한 국역본도 있다.

8) 백상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화엄경』 열둘째권 (서울: 삼장역회, 1928), 1. “각 종교의 신자로서 동일한 국사범으로 들어온 자의 수효는 모를 만치 많았다. 각각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며 기도하더라. 그때에 내가 열람하여 보니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요 한문으로 그저 있는 서적은 별로 없더라. 그것을 보고 곧 통탄한 생각을 이렇게 크고 큰 원력을 세운 것이다.”

9) 백상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화엄경』 열둘째권 (서울: 삼장역회, 1928), 1.

10) 백상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화엄경』 열둘째권 (서울: 삼장역회, 1928), 2.

11) 한보광, 『용성선사연구』 (서울: 감로당, 1981), 58-63.

12)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제5집(2002), 119-121.

13) 김치은, “운허의 『금강경』 한글 번역에 대하여,” 『대각사상』 제21집(2014), 63-64.

14) 발행연월일은 1922년 1월 16일이지만 서문은 1921년 10월 25일.

15) 발행연월일은 1922년 1월 30일이지만 摠判大義를 쓴 것은 1921년 11월 5일.

16) 윤점열(지원), “龍城禪師譯解 金剛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5. 6), 160.

태도를 한결같이 고수하고 있다.”¹⁷⁾거나 “용성의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이해는 국역 해설서 중에서 가장 늦게 발행된 이 저작에 의거해야 한다.”¹⁸⁾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상역과해금강경』은 독자성과 주체성을 갖춘 용성의 저작물로 “그의 번역서 중 대표가 될 만하다.”¹⁹⁾고 하겠다.

한편 용성이 삼장역회를 설립하고 국역불경을 발행하려고 한 동기는 타종교의 포교방법에 대한 자극, 시대에 맞는 알기 쉬운 불교서적의 필요성 그리고 역경을 진리의 나침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²⁰⁾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그의 국역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신유년(1921)에 출옥하여²¹⁾ 모모인과 협의하였으나 한 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²²⁾는 용성의 글에서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국역불경은 필요하지만 “자만심이 점차 생겨 법사·강사를 존중하거나 우러러 보는 생각이 줄어들어 비구를 존중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침내 三寶를 믿지 않는 폐단이 생긴다.”²³⁾는 尊師의 말을 인용하며 그의 역경사업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언론에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조선 불교를 드러내어 밝히는데 공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용성의 생각이 실로 아름답다.”²⁴⁾거나 “경울론을 조선문으로 번역하는 삼장역회의 사업을 찬성하며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용맹하게 나아가라.”²⁵⁾며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용성의 역경사업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비방과 우려, 사회적으로는 찬성과 격려로 상반되어 있었다.

원문에는 “54분과와 37주제”라고 되어 있으나 54분과는 48분과의 착오이므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하였다.

- 17) 이영자, “용성해 상역과해 금강경에 대하여,” 『불교학보』 제11집(1974), 219.
- 18) 이수창(마성), “백용성의 금강경에 대한 이해,” 『진자불전』 제19집(2017), 21.
- 19) 한보광,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1),” 『대각사상』 제3집(2000), 32.
- 20) 한보광,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1),” 『대각사상』 제3집(2000), 13-14.
- 21)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白相奎(SJ4743). “出獄年月日及其事由 大正10年 5月 5日 滿期.” 『동아일보』, 1921년 5월 6일. “용성은 保安法違反으로 懲役 1年6月을 言渡받았고, 1921년 5월 5일에 鄭春洙, 李景燮 등과 함께 만기로 출소하였다.”
- 22) 백상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구,” 『조선글화엄경』 열둘째권 (서울: 삼장역회, 1928), 2.
- 23) 之一生, “조선글 華嚴經을 보고,” 『불교』 제43호(1927), 19. “於是乎에 自慢心들이 增長하여 法師·講師에게 尊重瞻仰하는 觀念이 減退하여져서 比丘를 尊重視치 아니하여 究竟에 三寶를 信仰치 아니하는 弊害가 發生한다.” 한보광, 『용성선사연구』 (서울: 감로당, 1981), 182.
- 24) “智之端,” 『개벽』 제16호(1921. 10. 18). “近日 白相奎氏의 經營에 係한 三藏譯會는 그 事業이 實로 宜를 得한 것인 同時에 그 業이 成하면 朝鮮佛敎의 闡明에 그 功이 적지 아니할 것이다. 一般이 아는 바와 가티 佛敎와 朝鮮文化의 關係가 그러케 깊고 또 佛敎의 經傳이 그 數-八萬을 算한다 하되 아즉것 이를 우리 글로 化한 것이 엷기 때문에 一般은 그를 研究할 便宜를 가지지 못하였스며 譯아 佛敎의 教旨는 甚히 普通的이 되지 못하였다. 이를 생각하여 그 會를 經營하는 白氏의 생각은 實로 아름답다할 것이다.”
- 25) “불교의 민중화운동: 삼장역회의 출현,” 『동아일보』(1921. 8. 28). “재래불교의 선전방법을 관찰하면, 첫째 그 경전이 순한문이라 일반신도가 이를 이해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그 學得하기도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며, 둘째 그 해석과 강의가 亦 순한문이 아니면 순한문식이라. 이리므로 일반민중은 그 입문의 불편을 感하여 결국 그 全生命을 까지 閑却함에 至하나니 이 어찌 불교계를 위하여 통탄할 바 아니며, 조선 문명을 위하여 可惜할 바 아니리오? 吾人은 此에 鑑하여 불교의 諸경을 宗을 조선문으로 或 번역하며 講義하며 或 著述 編述 造論하여서 불교의 민중화를 목적하고 백상규씨를 중심하여 起한 삼장역회의 사업을 찬성하는 동시에 그 前途를 축복하여 이에 數言을 發하노니 원컨대 일반사회는 此에 대하여 多大한 同情을 興하며 同會는 萬難을 排하고 勇往猛進할지이다.”

3. 『상역과해금강경』의 발행

『상역과해금강경』은 “『금강경』에 관련되는 한 가장 늦게 나온 용성의 번역물이므로 그의 사상적으로 주류”²⁶⁾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해²⁷⁾란 이전부터 전하던 경전을 과목으로 나누어 해설한다는 의미이다. 내용은 처음 “佛(覺)住世說法儀式”부터 48번째 “全編總結”까지 모두 48과목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과목아래에 다시 43개²⁸⁾의 세부 체명을 두고 설명을 덧붙인 형식으로 전개하였다.²⁹⁾ 혹 우리말로 해석하거나 설명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작은 글자의 우리말 또는 한자를 병기해 놓았다. 이렇게 덧붙인 설명이 “용성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과에 대한 특징이 엿보인다.”³⁰⁾고 한다.

현재 『상역과해금강경』 초판의 발행시기와 판차에 대한 부정확한 기록이 제법 있다. 그것은 1924년 발행본은 무시되고, 1926년 발행본이 초판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오해의 배경은 1935년의 재판, 1937년의 3판, 1939년의 4판³²⁾의 판권지에 1926년 발행본을 초판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판이 1924년에 정식 출판되었다는 소개도 있기는 하나³³⁾ 일반적으로 1926년에 발행

26) 이영자, “용성해 상역과해금강경에 대하여: 육조해의와 비교고찰,” 『불교학보』 제11집(1974), 215.
 27) 비슷한 시기의 과해서로는 錦溟寶鼎(1861~1930)의 『念佛要門科解』가 있다.
 28) (1)佛(覺)破着相之疑부터 (43)佛(覺)示般若真空妙觀까지 해당된다. 이 중에서 (24)佛(覺)讚般若一念頓超에는 “通論過去節全編大義”(單)과 “此下는 通論下篇破微細二執”(單), (25)佛(覺)이 微破微細我法二執에는 “이왕 지나간 경문을 거듭 석함”과 “뒤로 오는 반경대의를 미리 분석함” 등의 항목을 별도로 두어 설명하고 있다.
 29) 김호귀는 “금강경번역의 체문제”(『전자불전』 제15집, 2013, 10-13)에서 『상역과해금강경』은 “전체를 전편 1-35, 후편 36-54 등 모두 54분과로 세분하고, 또 41회에 걸쳐 해당하는 경문의 단락에 대해 대의를 중심으로 부연설명을 더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54분과와 41단락을 표로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 표의 과목 이름에 “覺”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판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백용성대중사총서』 제3집과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의 국역본에도 54분과와 41회로 되어 있다. 최근 연구물인 이수창(마성)의 “백용성의 금강경에 대한 이해”(『전자불전』 제19집, 2017, 16)나 이전 연구물에서는 분과와 단락의 숫자에 대해 대개 이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다. 그러나 『상역과해금강경』은 초판부터 4판까지 48과목과 43개의 세부체명으로 편성된 점은 동일하다.
 30) 윤점열(지원), “龍城禪師譯解 金剛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5), 152.
 31) 한보광, “용성 스님의 후반기 생애(1),” 『대각사상』 제3집(2000), 33.
 김호귀, “금강경번역의 체문제,” 『전자불전』 제15집(2013), 3, 26.
 김광식, “백용성 불교개혁과 대각운동,” 『대각사상』 3집(2000), 79.
 32) 용성 생전에 삼장역회에서 발행된 4판까지는 용성의 발행 승인과 원문 교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4판까지를 대상으로 삼는다. 4판 이후에도 『상역과해금강경』은 발행되었는데, 1975년에 김성률, 김효율 등의 시주로 경주 衆生寺에서 발행한 『상역과해금강경』(표제와 판권지 서명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은 판권지에 판차를 5판으로 명시해 놓았다. 이 판에도 1924년에 발행본에 대한 소개는 없다. 이후에도 대각회 등에서 『상역과해금강경』이라는 서명이 있는 원 표제지와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등을 영인 수록하여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서명으로 수차례 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상역과해금강경』이 아니라 1936년에 발행된 한글판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이다.
 33) 이영자, “용성해 상역과해금강경에 대하여: 육조해의와 비교고찰,” 『불교학보』 제11집(1974), 215.
 鄭京淑(了竟), “韓佛教曹溪宗標準本『金剛經』研究: 漢文校勘과 한글 翻譯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79-80.

본을 초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용성의 저술이 전질의 형태로 발행되면서 『상역과해금강경』은 『용성대종사전집』에 제3권이 영인 수록되었고,³⁴⁾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에도 『용성대종사전집』에 수록된 동일본의 원문이미지와 텍스트가 탑재되어 있다.³⁵⁾ 수년 전에 발행된 전 20책의 『백용성대종사총서』에서도 제3권의 원문이미지와 한글 텍스트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³⁶⁾ 이렇게 용성의 독창적인 국역불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역과해금강경』은 현재까지 판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채, 1926년 발행본이 초판, 1935년 발행본이 재판, 그리고 1937년에 발행된 제3판이 定本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³⁷⁾ 그러나 『상역과해금강경』은 초판부터 4판까지 5회에 걸쳐 발행되었다. 이제 그 과정과 특징을 차례로 살핀다.

3.1 초판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과해와 국역이 완성된³⁸⁾ 다음해인 1924년 2월 23일에 『상역과해금강경』이라는 서명으로 처음 발행되었다. 국역을 끝 낸지 근 1년이 지나서 발행하게 된 것은 “경전 번역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인쇄비용이 없는 것을 어찌하겠는가?”³⁹⁾라는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초판이 발행되자 용성은 바로 臨濟宗⁴⁰⁾ 초대 管長을 역임한 金擎雲(1852~1936)에게 발송하였고, 경운은 그해 4월 7일에 용성의 해설을 극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지금까지 우리러 보면서도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야 저의 뜻을 보냅니다. 보내주신 『금강경』 두 권을 받들어 읽어보니 마치 기원정사에서 법의를 대하고 직접 배우는 듯합니다. 과해하여 조목조목 분석하신 것이 어찌 이리 환하고 자세합니까? … 책상위에 두니 세 종류의 반야 소리가 마치 뚜렷하게 주위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옛날 야보나 종경의 해석이라도 이보다는 못할 것입니다.”⁴¹⁾

34) 『용성대종사 전집』 제5집(서울: 신영사, 1991). 無我: 제152호.

35)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http://kabc.dongguk.edu/Home/Search>).

36) 『백용성대종사총서』 제3·12책(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6). 텍스트는 3책(507-581), 원문이미지는 12책(725-840).

37) 김호귀, “『상역과해금강경』해제,” 『백용성대종사총서』: 제12책(동국대학교 출판부, 2016), 823.

38) 『상역과해금강경』(서울: 삼장역회, 1924), 91-92. “佛紀二千九百五十年癸亥(1923)三月四日終譯, 불교이천구백오십년게해삼월사일종역.”

39)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전부대의운관』 9, 論今思潮,” 『상역과해금강경』, 서울: 삼장역회, 1924), 8. “經之譯難은 猶可且置어니와 印費實無를 奈何奈何오.”

40) 1911년 1월 15일에 순천 송광사에서 설립된 종단으로, 친일적인 圓宗에 비해 임제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듬해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구축된 백용성(白相奎)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SJ4743)의 직업란에는 “僧侶 臨濟宗 佛教”로 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임제종이 해체된 이후에도 참여한 승려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불교의 정통성을 이은 종단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1) “至于今, 景仰之稟, 未嘗問影, 今茲意表. 奉讀惠送金剛經二卷, 如對法儀, 於祇桓精舍, 親炙教誨. 何○科解之, 條分縷析, 如此昭詳耶? … 置諸案上, 宛有三種般若之聲, 如震於左右. 雖以昔日, 治父宗鏡之解, 無賢於此耳. 陰甲子(1924) 四月 初七日 小衲 金擎雲 拜上.”

초판의 卷首題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題籤題는 『상역과해금강경』이다. 신연활자판의 4침 선장본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소는 삼장역회, 인쇄는 경성부 견지동 32번지에 있던 한성도서주식회사였다. 발행비용을 인경시주로 충당한 탓에 비매품이었다.⁴²⁾

그런데 초판은 인쇄한 이후에 誤字와 缺字가 발견되자 배포 이전에 수정을 하였다. 수정방식은 오자나 결자의 우측에다 교정 또는 보완해야 할 문자를 활자를 이용하여 붉은 색으로 찍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10곳에 걸쳐 있으며, 교정 보완한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초판의 수정사례

면수	오자 혹은 결자	수정	근거
윤관-1	唯我獨在	唯我獨 在	오자
윤관-2	何以故로	何以故 로	오자
1	須 善 提	須 善 提	오자
16	疑無 上 因으로 契無 上 果	疑無 相 因으로 契無 相 果	오자
26	수리실	수 보 리실	결자
32	대 환 신불	대 화 신불	오자
45	應生嗔	應生嗔 恨	결자
45	인 생	인 상	오자
75	耨多羅 三藐三菩提	阿 耨多羅 三藐三菩提	결자
88	소견 다	소견 과	오자

초판은 마지막 면의 “印施 崔潤錫 崔潤鈺”과 같이 이 두 사람이 인경시주를 맡음으로써 발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윤석이라는 이름은 본문과 함께 인쇄된데 비해 최윤옥이라는 이름은 인쇄 이후에 푸른 색 스탬프로 찍어 놓았다. 이들 형제는 2년 뒤인 1926년에 수정초판을 발행할 때도 시주자였다.

그런데 1924년에 발행된 초판은 현재 국내기관이나 개인의 소장본이 드물게 전하기는 하나 이 판의 존재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⁴³⁾ 그 이유는 후일 발행된 재판, 3판, 4판에서 1926년 발행분이 초판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판차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상역과해금강경』이 발행된 지 2년 뒤인 1926년 4월 17일(음력)에 국역을 시작한 『조선글화엄경』⁴⁴⁾을 『상역

이 편지는 1939년에 발행된 4판에 처음으로 영인 첨부되었고, 1975년에 경주 중생사에서 발행된 『상역과해금강경』(『금강반야바라밀경』)과 『용성대중사 전집(제5집)』(1991)에도 수록되어 있다.

42) 한보광의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1)”(『대각사상』 제3집, 21)에 따르면, “당시 비매품으로 보급한 것은 자신이 설립한 삼장역회가 출판사로 인가를 받지 못해 판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43) 대각사상연구원, 『백용성대중사 연보』(<http://www.taegak.or.kr/page/great2.html>, 2019년 10월 25일 검색)에도 1926년 4월 29일에 “『상역과해금강경』발간(삼장역회)”으로 소개되어 있다. “용성진중(백용성)조사 약연보,” 『각해일륜』(세계불교성지보존회, 2000), 48, “1926년 『상역과해금강경』을 간행 하였다.”고 되어 있다.

과해금강경』보다 먼저 국역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소장기관의 목록방식이다. 곧 초판은 『상역과해금강경』이라는 제첨제는 있으나 標題紙가 없고, 판권지에도 서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소장기관에 따라서는 목록규칙에 따라 卷首題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이나⁴⁵⁾ 가장 앞에 배치된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전부대의운관』이라는 서명으로 편목⁴⁶⁾해 놓았다. 그러므로 과거의 검색방식으로는, 『상역과해금강경』이라는 서명으로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초판이 발행이후 별로 알려지지 않게 된 이유는 후대 판에서 초판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데다 소장기관의 목록방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초판은 인경시주자의 한 사람인 최윤옥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은데다 오자와 결자, 한글표기, 운관의 차례번호와 세부제목 사이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 등 여러 곳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초판은 수정은 필요하였지만 편차, 내용 전개 및 해설에 있어서 지적받을 만한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용성도 초판이 발행되자 바로 김경운에게 송부하는 등 직접 외부에 배포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이 초판은 이후 발행된 4판까지 판권지에서 일체 소개되지 않았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수정초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3.2 수정초판⁴⁷⁾

초판을 발행한 지 2년 뒤인 1926년 4월 29일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발행되었다.⁴⁸⁾ 비매품 표시는 없으나 인경시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발행된 2,000부⁴⁹⁾는 무료로 배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정초판은 판권지의 “奉母漢陽趙氏”印施 崔潤錫,崔潤鈺”과 같이 초판을 발행할 때 인경시주였던 최윤석 최윤옥 형제가 다시 어머니인 한양 조씨를 위해 인경시주를 맡음으로써 발행되었다.⁵⁰⁾

44) “백용성역 『조선글화엄경』”(등록문화재 제629호).

4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경화당 C3 A31F)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D 213.13 금11 ㅅ) 모두 서명은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되어 있다.

46)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초판과 4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초판(古1743-92) 서명은 『금강반야바라밀경전부대의운관』 4판(의산古1743-44) 서명은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이다.

47) 1924년과 1926년 발행본은 판차의 명시가 없으므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1926년에 발행된 초판은 이후 판차에서 초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924년 초판을 수정 보완한 판이다. 그러므로 1924년 초판과 구분하기 위해 수정초판이라고 하였다.

48) 권수제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標題와 제첨제는 『상역과해금강경』이다. 신연활자판의 4침선장본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소는 삼장역회, 인쇄는 경성부 수은동 68번지에 있던 海英畝인쇄소이다.

49) 백상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화엄경』 열둘째권 (서울: 삼장역회, 1928), 2, “임의 번역하여 인쇄한 경은 다음과 같음”에서 “『상역과해금강경』 이천부”로 되어 있다.

50) 『동아일보』, 1931년 1월 13일, 長生實話, “최윤석씨 모친 조씨”, “조씨의 소생은 금년 69세인 최윤석씨와 66세인 최윤옥씨 형제뿐이며... (조씨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축원할 뿐이지요.”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상역과해금강경』 초판과 수정초판의 인경시주를 최씨 형제가 하게 된 것은 어머니 한양 조씨의 長壽를 축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시주로 참여한 이들 형제는 당시 직물매매와 금전대부업을 하던 최윤석상점의 사장과 부사장이었다. 최윤석상점은 1929년 6월 2일에 경성 남대문동 1정목 127번지에서 설립되었고, 이들 형제는 대주주이자 사장, 부사장이었다.⁵¹⁾ 최윤석상점은 1903년⁵²⁾에 포목상으로 시작한 이래 이때에 와서 사세가 성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⁵³⁾

수정초판은 초판과 달리 標題紙(Title page)가 새로 첨부되었다. 이 표제지에는 장방형의 네모를 두고, 이를 다시 세로로 셋으로 나누어, 『白龍城 譯解』 詳譯科解金剛經 全』 三藏譯會發行이라는 서지정보를 수록해 놓았다. 이 중에서 좌우의 저자 발행정보는 활자이나 가운데 書名은 필사된 것을 영인한 것이다. 이 서명은 3·1독립운동 때 용성과 함께 민족대표로 참여한 오세창이 쓴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⁵⁴⁾ 수정초판은 이 서명 글씨를 제첩체로도 사용함으로써 외형상으로 이전보다 세련되어졌고, 전체적으로 완비되어 보인다.

한편 이후 발행된 재판, 3판, 4판에서 이 판을 초판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1924년에 발행된 초판은 이후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과연 초판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판을 초판이라고 하였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판의 문자 異同을 통해 살피기로 한다. 먼저 수정초판은 초판에서 붉은 색으로 수정 보완하였던 오자나 결자를 바로 잡아 인쇄해 놓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수정의 흔적이 보인다. 곧 “國土淨”,⁵⁵⁾ “白相奎”,⁵⁶⁾ “빌기름”⁵⁷⁾은 “佛國土淨”, “白相奎識”, “뱀빌기름”로 보완 수정하였고, “제보살”⁵⁸⁾과 “석일(昔日)”⁵⁹⁾은 “모든 보살”과 “옛날”로 바꾸어 놓았다. 그 외에도 “저때”⁶⁰⁾를 “이때”, “니”⁶¹⁾를 “네”, “이 다수 보리야”⁶²⁾를 “다수 보리야”로 적절하게 바꾼 곳도 보인다. 그리고 권미의 “終譯”은 “科解翻譯終”, “印施 최윤석 최윤옥”은 판권지로 옮겨 “봉모 한양조씨 인시 최윤석 최윤옥”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 이 외에는 한글 표기의

5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년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서울육백년사 연표』, “1929년 6월 돈의동 47번지에 최윤석상점 설립. 1939년 돈의동 47번지 소재 최윤석상점 폐업.”

52) 이전부터 종로에서 동일한 사명으로 사업을 해왔다는 것은 1933년의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다. 곧 이해 4월 한 달 동안 주단과 포목의 판매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행사의 이름은 “개업삼십주년기념 기념품경품권진정대 매출”이었다. 1933년에 개업 30주년이라면 설립은 1904년경이다. 그렇다면 1904년경에 포목상을 시작하여 1929년에 와서야 회사를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최윤석상점은 금전대부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53) 『별건곤』 제26호(1930년 2월 1일), 各商店 日曆評. “종로 崔潤錫상점 것이 대형소형이 모다 포목점것인 듯 십게 포목상당게 된 것을 칭찬아니할 수 업다.”

54) 『緣起法의 생활』: 죽림 제273호(서울: 대각회 출판부, 2010), 96. “『상역과해금강경』 표지 제호를 천도교 대표 오세창선생이 명필이기에 쓰시도록 하여.”

55) 『윤관』 4면 7행.

56) 『윤관』 8면.

57) 『상역과해금강경』 3면 8행.

58) 『상역과해금강경』 6면 12행.

59) 『상역과해금강경』 26면 9행.

60) 『상역과해금강경』 3면 7행.

61) 『상역과해금강경』 6면 8행.

62) 『상역과해금강경』 87면 13행.

차이가 대부분인데⁶³⁾ 이 표기방식은 같은 판에서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초판과 수정초판의 차이는 편차나 내용의 전개문제가 아니라 문자의 수정 보완, 한글화 확대 그리고 표기방식 등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재판으로 발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판에서 이 수정초판을 초판으로 명시한 이유는 다른 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1924년 초판은 시주자 중에서 최윤옥의 이름을 인쇄하지 못하였다. 물론 인쇄 이후 누락된 이름을 푸른 색 스탬프로 찍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마침 2년 뒤에 수정하여 발행할 때, 이 형제는 다시 인경시주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 용성은 문자의 수정은 물론 인경시주 두 사람의 이름도 함께 인쇄하여 온전하게 발행함으로써 이전의 미흡함을 만회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오세창의 친필서명을 標題와 제첨제로 사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완비된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재판

수정초판을 발행한 지 9년 뒤인 1935년 8월 10일에는 재판이 발행되었다.⁶⁴⁾ 앞선 판의 인경시주를 맡았던 최윤석은 1931년에 사망하였고, 이어서 최윤옥이 사장이 되었으나⁶⁵⁾ 2년 뒤인 1933년에는 화재⁶⁶⁾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탓에 최윤옥도 더 이상 인경시주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재판은 崔善光明, 高大日華, 李大顯成 등 세 사람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이 판은 다른 판과는 달리 “定價 70錢”이라는 가격표시가 있는데, 판매 수익으로 출자금을 회수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반적인 상황은 알기 어렵다.

한편 용성은 1921년 봉익동 3번지에 대각사를 개설하고 대각교를 창립하였다. 이후 점차 그가 국역한 불경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대각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상역과해금강경』도 재판을 발행하면서 용성은 자신을 “灌頂師”로 일컫고, “佛”을 “覺”, “菩薩”을 “正士”로 바꾸는 등 용어에서 매우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교정미흡으로 “수보리”가 “수리보”⁶⁷⁾로

63) 한글 표기에 차이가 있는 곳은 많으나 문장을 이해하는데 지장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표기 차이가 있는 몇몇을 “초판”과 “수정초판”의 형식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런니”와 “러니”, “안지시니”와 “안즈시니”, “아는야”와 “아느냐-”, “오날날”과 “오늘날”, “하야곰”과 “하야금”, “깨달아슬세”와 “깨다랏슬세”, “밭고자”와 “밭고져”, “그렸습이다”와 “그렷습이다”, “저우에서”와 “저우에서”, “중생”과 “중생”, “머물지”와 “머므지”, “머물지니라”와 “멈을지니라”, “못하겠습이다”와 “못하겠습이다”, “하심이라”와 “하심이니라”, “이니이다”와 “이니라”, “잇습이니이다”와 “잇습이다”, “아니니라”와 “안이니라”, “저때”와 “저때”, “하니이다”와 “하니다”, “가득흔”과 “가득한” 등이다.

64) 수정초판과 같은 양식의 표제지가 있으며, 권수제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제첨제는 『상역과해금강경』이다. 신연활자판의 4침선장본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소는 삼장역회, 인쇄는 경성부 견지동 32번지에 있던 한성도서주식회사이다.

65) 『동아일보』(1931. 9. 9), 8면.

66) 『동아일보』(1923. 2. 5), 「최윤석상점 광고」(직전에 있었던 화재 때 도와준 여러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의 광고임).

되어 있는 등 오자가 보인다. 이 재판은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본이 매우 희귀하다.⁶⁸⁾

3.4 3판

재판을 발행한 지 2년 뒤인 1937년 10월 30일에 3판이 발행되었다.⁶⁹⁾ 판권지에는 1926년 초판, 1935년 재판, 1937년 3판의 판차를 차례로 수록해 놓았다. 이 판은 가운데에 판심을 두고 양면을 한 장에 조판 인쇄하여 절첩한 선장본이다. 그래서 면수가 아니라 장수로 표시되어 있다. 외형으로는 초판 이후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이 3판은 간행방식과 외형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3판은 재판의 오자 등을 바로 잡고, 인명은 오른쪽에 검은 색의 작은 원점을 찍어 놓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점이 재판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현존한 『금강반야바라밀경』 원문과 국역 그리고 해설 형식의 전개방식은 이전 판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재판은 국한문 혼용, 3판은 한글전용”⁷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3판은 재판과 거의 동일하나 초판부터 재판까지 사용되던 “『금강반야바라밀경』”과 “반야바라밀”의 “밀”의 한자표기가 “密”에서 “蜜”로 바뀌었다는 점⁷¹⁾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이 판은 권미에 있는 “印經施主”의 세부 기록과 같이 “서울 종로 연지동 156번지에 사는 청신녀 병자생(1876) 김씨가 살아서는 안락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며”⁷²⁾ 정축년(1937) 음력 8월에 인경시주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발행되었다. 그래서인지 판권지에는 비매품이라는 표시가 있다. 이 3판은 『용성대종사 전집』과 『백용성대종사총서』에 수록되었고, 수록된 동일본이 『불교기록 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에도 탑재 소개됨으로써 현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3.5 4판

3판을 발행한 지 2년 뒤인 1939년 10월 10일에는 4판이 발행되었다.⁷³⁾ 4판은 신활자본이 아닌

67) 『상역과해금강경』 재판 (서울: 삼장역회, 1937), 4면 11행.

68)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등록번호 K122241).

69) 수정초판과 같은 양식의 표제지가 있으며, 권수제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제침제는 『상역과해금강경』이다. 신연활자판의 4침선장본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소는 삼장역회, 인쇄는 경성부 인사정 119-3호에 있던 大東인쇄소이다.

70) 김호귀, “『상역과해금강경』해제”(『백용성대종사총서』: 제12책(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823. “『상역과해금강경』의 초판은 1926년 4월 29일 삼장역회에서 발행하였는데, 이후 두 가지 본으로 출간되었다. 재판(1935년 8월 10일 발간)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본이고, 삼판(1935년 8월 10일 발간)은 한글 전용본이다.”

71) 서명이나 제명뿐 아니라 “21 須菩提群疑가 頓破하고 言忘理極할새 遂請經名, “...覺說般若波羅蜜이 卽非般若波羅蜜이라(是名般若波羅蜜이나라)”는 해설에서 보듯이 반야바라밀의 “밀”자의 표기도 “蜜”자를 사용하는 등 3판부터는 “蜜”자로 완전하게 바꾸었다.

72) “京城府 蓮池町 百五十六番地, 清信女 丙子生 金氏 清淨心 保體, 生前安樂 死後往生 極樂之大願, 丁丑 仲秋.”

석인본이다. 이전 판과 같은 양식의 표제지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의 서명은 비슷하게 필사하여 영인하였다. 판권지에는 1926년 초판, 1935년 재판, 1937년 3판, 1939년 4판 등의 판차를 수록해 놓았다.

이 판이 비매품으로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安養庵⁷⁴⁾의 주지와 신도 등 모두 8명이 인경대시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곧 주지인 李泰俊 50권, 청신녀 盧發心— 100권, 鄭一念華 100권, 盧大慈心 50권, 金大性心은 50권, 申光明心 50권, 정축생(1937)의 세살 여자아이 柳氏 50권, 高陽郡 崇仁面 貞陵里 150번지에 사는 청신녀 林道德華 50권 등 모두 500권에 대한 비용을 이들이 분담하였던 것이다.

안양암에서 4판을 발행하게 된 것은 이태준(1879~1973)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지가 된 이후 1932년에는 『육성례』, 『조석염불선후송절차』, 『천슈경서문』, 『관세음보살 영험록』, 『천수다라니경 인해』 등 국역불전들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朝夕持誦』⁷⁵⁾이라는 서명으로 발행하는 등 국역 불경을 통해 불교를 대중화시키고자 노력을 한 승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태준의 활동은 용성의 불교보급 사상과 일정 부분은 일맥상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24년 4월에 김경운이 용성에게 보낸 편지가 이 판에만 영인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발행 당시 용성의 격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4판은 대각교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윤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3판의 원문을 충실하게 淨書하여 발행한 판이었다.

4. 각 판의 서지적 특징과 용어

4.1 서지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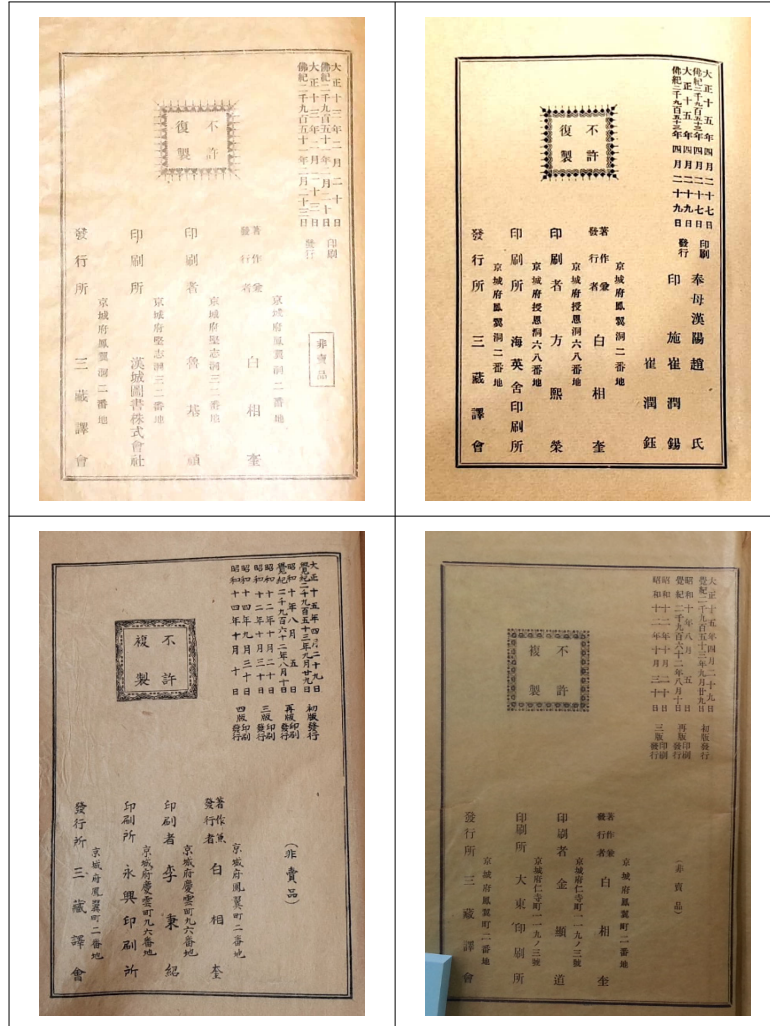
각 판의 서명은 제침제부터 標題,⁷⁶⁾ 권수제, 판심제 등 다양하다. 특히 현대서 서명채택의 으뜸 정보원이 되는 표제는 초판에만 없고, 수정 초판부터 4판까지 모두 『상역과해금강경』이다. 그런데 영인된 표제의 서체는 수정초판부터 4판까지 유사해 보이지만 모두 다르다. 권수제와 제침제는 모든 판이 『金剛摩訶般若波羅密(蜜)經』과 『詳譯科解金剛經』이고, 3판과 4판에만 있는 판심제는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이다.

73) 3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 장책되었으며 권수제와 판심제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제침제는 『상역과해금강경』이다. 5침선장본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소는 삼장역회로 동일하다. 인쇄는 경성부 慶雲町 96번지에 있던 永興 인쇄소이다.

74) 서울 종로 장신동 소재.

75) 李泰俊, 『朝夕持誦』, 목판본 (서울: 안양암, 1932).

76) 수정초판이후 표제지의 구성은 좌로부터 “白龍城 譯解 詳譯科解 金剛經 全 三藏譯會 發行”과 같이 동일하다.



<사진 1> 초판, 수정초판, 3판, 4판의 판권지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77)

판중은 초판부터 3판까지는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인쇄한 신활자본이지만 4판만은 淨書本을 마련하여 인쇄한 석인본이다.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행소는 모두 경성 봉익동78) 2번지에 있는 삼장역회였고, 인쇄소는 초판과 재판은 한성도서, 수정초판은 해영사, 3판은 대동, 4판은 영흥이었다. 각 판의 서지정보를 대비하면 <표 2>와 같다.

77) 초판(개인소장본), 수정초판·3판(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4판(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78) 3판과 4판은 鳳翼町.

<표 2> 각 판의 서지정보 대비

구분	서명 (標題/ 卷首題)	판종	발행/인쇄소	발행연월일 ⁷⁹⁾	가격	면수·장수 (윤관, 본문)	장책
초판	없음/ 金剛摩訶般若波羅密經	신활자	삼장역회/漢城圖書	1924년 2월 23일	비매품	8, 92면	4침선장
수정초판	詳譯科解金剛經/ 金剛摩訶般若波羅密經	신활자	삼장역회/海英舍	1926년 4월 29일	[비매품]	8, 91면	4침선장
재판	상동	신활자	삼장역회/한성도서	1935년 8월 10일	70전	8, 93면 ⁸⁰⁾	4침선장
3판	詳譯科解金剛經/ 金剛摩訶般若波羅密經	신활자	삼장역회/大東	1937년 10월 30일	비매품	4, 51장 ⁸¹⁾	4침선장
4판	상동	석인	삼장역회/永興	1939년 10월 10일	비매품	4, 56장 ⁸²⁾	5침선장

한편 조판, 인쇄 및 장책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곧 초판, 초판수정, 재판은 전 후면을 별도로 조판하고, 각 면당 면수를 부여하여 인쇄 장책하였다. 그러나 3판과 4판은 가운데 판심을 두고 전 후면을 한 장에 인쇄한 뒤 절첩하여 장책한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전자는 면수, 후자는 장수로 구분된다. 또한 초판부터 3판까지는 신활자본이나 4판만은 석인본이며, 5침선장본인 4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4침선장본이다.

4.2 용어

대각교의 적극적인 대중포교는 1922년에 발행된 『팔상록』부터 “佛”을 “覺”으로 바꾸는 등 용성의 저작에서도 기존 용어들의 변화를 가져온다.⁸³⁾ 용성은 “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친지가 생기면서부터 각이 근본인데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면 축생이나 초목, 돌과 같다. 각이란 본래 깨친 것, 비로소 깨친 것, 마침내 깨친 것과 크게 깨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각이라고 한다.”⁸⁴⁾

79) 각 판차의 판권기에 기재된 발행연월일은 아래와 같다.

초판 1924년 2월 20일, 佛紀2951년 2월 20일 인쇄. 1924년 2월 23일, 佛紀2951년 2월 23일 발행.

수정초판 1926년 4월 27일, 佛紀2953년 4월 27일 인쇄. 1926년 4월 29일, 佛紀2953년 4월 29일 발행.

재판 1926년 4월 29일, 覺紀2953년 9월 29일 초판발행. 1935년 8월 5일, 覺紀2962년 8월 10일 재판 인쇄발행.

3판 1926년 4월 29일, 覺紀2953년 9월 29일 초판발행. 1935년 8월 5일, 覺紀2962년 8월 10일 재판 인쇄발행. 1937년 10월 20일, 昭和12년 10월 30일 3판 인쇄발행.

4판 1926년 4월 29일, 覺紀2953년 9월 29일 초판발행. 1935년 8월 5일, 覺紀2962년 8월 10일 재판 인쇄발행. 1937년 10월 20일, 昭和12년 10월 30일 3판인쇄발행. 1939년 9월 30일, 昭和14년 10월 10일 4판 인쇄발행.

80) 출자자 명단 1면 포함.

81) 마지막 51장 후면은 시주 공양기.

82) 시주질 1장 포함.

83) 한보광, 『용성선사연구』(서울: 감로당, 1981), 111. “1922년 9월에 초판을 낸 『팔상록』부터 佛을 覺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들도 바꾸었다. 곧 불은 대각,菩薩은 正士, 佛供은 聖供, 佛事는 聖事, 大師는 聖師, 佛法은 覺法, 僧侶는 先生, 佛像是 覺像, 大雄殿은 大覺聖殿, 立繩은 管衆, 부전은 掌禮, 院主는 원감 등이었다.”

이에 맞추어 『상역과해금강경』도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들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1935년에 발행된 재판부터 비롯되었다. 이때 年紀도 이러한 용례를 따르고 있다. 곧 초판과 수정초판은 “佛紀”, 재판부터 사판까지는 “覺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술자 표시에서도 용어의 변화가 나타난다. 곧 초판이나 수정초판에는 “三藏譯會 龍城堂 白相奎”,⁸⁵⁾ 재판에는 “灌頂師 龍城 白相奎”,⁸⁶⁾ 3판과 4판에는 “三藏譯會 龍城 白相奎”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⁸⁷⁾ 이러한 사례는 권두에 수록되어 있는 『윤관』의 역자표시에서도 거의 동일하다.⁸⁸⁾

이와 같은 대각교 용어의 사용⁸⁹⁾은 <표 3>에서 보듯이 번역을 마쳤다는 권미의 표기에서도 보이는데, 이 역시 각 판 간에는 차이가 있다. 곧 초판과 수정초판에서는 “佛紀”, 재판과 3판에서는 “大覺紀元”이라는 年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번역을 마친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초판에서는 “終譯”, “중역”이었으나 수정초판 이후는 “科解翻譯終結”, “과해하고 번역함을 맞치노라(맞이노라, 마치노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다.

<표 3> 권미의 중역표시

구분	표현방식
초판(1924)	“佛紀二千九百五十年癸亥三月四日終譯, 불기이천구백오십년계해삼월사일중역.”
수정초판(1926)	“佛紀二千九百五十年癸亥三月四日科解翻譯終結, 불기이천구백오십년계해삼월사일에 과해하고번역함을맞치노라”
재판(1935)	“大覺紀元二千九百五十年癸亥三月四日科解翻譯終結, 대각기원이천구백오십년계해삼월사일에과해하고번역함을맞이노라.”
3판(1937)	“大覺紀元二千九百五十年癸亥三月四日科解翻譯終結, 대각 기원 이천 구백 오십년 계해 삼월 사일에 과해하고 번역함을 마치노라.”
4판(1939)	“大正十二年 大覺紀元二千九百五十年癸亥三月四日科解翻譯終結, 대각 기원 이천 구백 오십년 계해 삼월 사일에 과해하고 번역함을 마치노라.”

84) 백상규, 『吾道는 覺』(경성: 삼장역회, 1938), 21-22. “龍城曰: 自天地壤空成住以來로 以覺으로 爲本이니 若人이 不覺이던 無心也며 愚癡也며 與畜生으로 無異也며 與草木瓦石으로 同也리라. 其覺者는 何也오? 本覺이며 始覺이며 究竟覺이며 大覺也라. 故로 吾道는 覺也니라.”(그 각이란 무엇인가?)

85) 『상역과해금강경』 초판(1924), 수정초판(1926), 본문1. “三藏譯會 龍城堂 白相奎.”

86) 『상역과해금강경』 재판 (서울: 삼장역회, 1937), 본문1. “灌頂師 龍城 白相奎.”

87) 이보다 2년 뒤인 1937년에 발행된 3판의 저술자 표시는 “三藏譯會 龍城 白相奎”와 같이 “관정사”는 제외하였다.

88) 윤관 말미의 연기와 찬자 표시.

초판, “佛紀 2950年(1923) 癸亥 3月 8日 龍城堂 白相奎.”

수정초판, “佛紀 2950年 癸亥 3月 8日 龍城堂 白相奎識.”

재판, “覺紀 2950年 癸亥 3月 8日 灌頂師龍城 白相奎識.”

3판, “覺紀 2950年 癸亥 3月 8日 三藏譯會 龍城 白相奎識.”

4판, “佛紀 2950年 癸亥 3月 8日 三藏譯會 龍城 白相奎識.”

89) 1930년 3월 15일 대각교당에서 발행된 『각해일문』에서는 “大覺教 龍城堂 震鍾 白相奎 著述”과 같이 대각교와 범명을 병기해 놓았다.

한편 내용의 편성은 『윤관』을 권두에 두고, 『상역과해금강경』은 1번째 “佛(覺)住世說法儀式”부터 48번째 “全編摠結”까지 48과목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세부항목을 두어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48과목과 세부항목의 제명도 판차에 따라 용어나 우리말 조사의 有無 차이가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48과목과 43개 세부항목의 題名

구분	초판(1924)	수정초판(1926)	재판(1935)	3판(1937)	4판(1939)
윤관1	佛之應世에 先示本分	좌동	覺之應世에 先示本分	좌동	좌동
윤관8	佛敎理가 不止於此	좌동	覺敎理가 不止於此	좌동	佛敎理가 不止於此 佛紀
상역6	返取善護念付囑之意 答不必別求	좌동	返取善護念付囑之意 하야 答不必別求	좌동	좌동
상역7	但諸善薩未領其旨故 更欲樂聞	좌동	但諸正士未領其旨故 更欲樂聞	좌동	좌동
상역20	(10)佛示法身眞土	(10)佛示法身眞上	(10)覺示法身眞上	좌동	좌동
상역33	(28)佛示法身無我하 사 例破善薩微細二執	좌동	(28)覺示法身無我하 사 例破正士微細二執	좌동	좌동
상역37	疑佛身無相인데 誰當 說法 (32)佛이 破報身佛說 法之疑	좌동	疑佛身無相인데 誰當 說法 (32)覺이 破報身覺說 法之疑	疑覺身無相인데 誰 當說、 (32)覺이 破報身佛 說法之疑	좌동
상역41	(36)破佛有人我하고 顯法身眞我	좌동	(36)覺有人我하고 顯 法身眞我	좌동	좌동
상역45	疑法身이 一切皆非인 댄 又何以說四相見고	좌동	疑法身이 一切皆非인 댄 又何以說四相見	좌동	좌동

<표 4>는 각 판의 제명을 대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판차 간의 동질성도 볼 수 있다. 곧 초판과 수정초판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재판, 3판, 4판은 두 곳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상역과해금강경』의 각 판은 크게 1920년대에 발행된 초판과 수정초판, 그리고 1930년대에 발행된 재판부터 4판까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유형 역시 내용의 전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차이를 보면, 1926년에 발행된 수정초판에서 초판의 제20과목인 “佛示法身眞土”를 “佛示法身眞上”으로 수정하자 이후 모든 판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수정해놓은 “진상”의 “上”이 의미상으로 애매하므로 현재 “相”의 잘못으로 보기도 한다.⁹⁰⁾ 그런데 초판의 “眞土”는 해석상의 “實土”와 연관되므로 수정 초판이후 “上”으로 잘못 고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또 1935년에는 재판을 발행하면서 “불”, “보살” 등을 “각”, “정사”로 바꾸는 등 대각교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때 제6과목에

90) 『백용성대종사총서』 제 3책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6), 546(주석30). “上’은 ‘相’의 오기로 간주된다.”

서 “하야”를 보완하고, 제45과목에서는 “고”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판매용인 재판이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1937년에는 재판과 거의 동일한 3판을 발행하였다. 이때 제37과목의 “誰當說法”은 “法”자가 빠진 “誰當說”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의 세부 제명에서도 “破報身佛說法之疑”와 같이 “각”이 아니라 “불”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설법”을 “설”로 한 것은 이 경문의 해설을 보면 “설법”이 맞으므로 “法”자가 결락된 것이다. 또 3판에서 “불”을 “각”으로 모두 바꾸어 놓은 점을 볼 때 여기에서 “각”을 “불”로 고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3판을 발행할 때 참고한 臺本에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39년에는 안양암의 이태준이 주도하여 4판을 발행하였는데, 이때는 3판을 정서함으로써 3판과 문자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다. 다만 『윤관』의 8번째 제명인 “覺敎理가 不止於此”를 “佛敎理가 不止於此”, 『윤관』을 저술한 시기의 연호를 “覺紀”에서 “佛紀”로 바꾸어 놓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3판의 본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윤관』의 1번째 제명인 “覺之應世에 先示 本分”에서도 3판과 동일하게 “覺”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곳에서만 “각”을 “불”로 바꾸어 놓은 것 역시 잘못된 대본 탓으로 추정된다.

5. 결 언

『상역과해금강경』은 용성이 불경의 국역화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고자 한 국역불경 중의 하나이다. 이 저작은 15년에 걸쳐 신활자본인 초판부터 석인본인 4판에 이르기까지 5회나 발행되었다. 내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48과목으로 나누어 국역하고, 다시 43개의 세부항목을 두어 해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해설방식은 용성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오늘날 『금강반야바라밀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역과해금강경』은 그 저작의 가치에 비해 연구의 바탕이 되는 발행이나 판차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1924년에 초판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26년에 발행된 수정초판을 초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용성의 생전에 삼장역회가 발행한 판본을 대상으로 판차와 용어 그리고 서지적인 특징을 살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한 『윤관』을 권두에 둔 『상역과해금강경』은 1920년대에 발행된 초판과 수정초판, 1930년대에 발행된 재판, 3판, 4판 등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48과목과 43개의 세부항목의 제명을 대비해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또한 현토한 『금강반야바라밀경』 원문과 국역 그리고 해설 형식의 전개방식은 모든 판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판에 따라 한글전용이나 국한문혼용 등의 차이는 없다. 다만 후판은 이전 판의 오자나 결자를 수정 보완하거나 대각교 용어와

한글 사용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둘째, 초판은 탈고한 지 근 1년이 지난 1924년 2월 23일에 한성도서에서 인쇄하였다. 그런데 오자와 결자, 시주자 인명의 누락, 한글의 표기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標題紙는 첨부되지 않았다. 인쇄이후에 발견된 오자나 결자 10곳은 활자를 붉은 색으로 찍어 수정 보완하였고, 결락된 시주자인 최윤옥도 푸른 색 스탬프로 찍을 수밖에 없었다. 초판이 발행되자 용성은 김경운에게 바로 발송하는 등 직접 배포까지 하였으나 이후 판에서 1926년 발행본을 초판으로 명시한데다 소장기관에서도 검색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판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셋째, 1926년 4월 29일에는 초판의 오자와 결자 그리고 한글표기 등을 수정 보완하여 2,000부를 海英畝에서 인쇄하였다. 이때 수정한 내용은 편성이나 전개방식이 아니라 문자의 수정 보완 등이었다. 이후 발행된 재판, 3판, 4판의 판권지에서 초판을 1926년 발행본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수정초판을 초판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정초판의 발행 의의는 초판을 수정 보완하여 바로 잡았다는 점과 함께 인경시주의 이름이나 오세창의 친필서명을 갖춤으로써 전보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판에서는 제20과목의 제명을 수정해 놓았다. 곧 초판에서는 “佛示法身眞土”이었으나 이 판에서는 “佛示法身眞上”으로 하였는데, 내용상으로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대각교의 보급과 포교를 위해 1935년 8월 10일에는 崔善光明 등 3인을 출자자로 하여 한성도서에서 재판을 인쇄하였다. 출판비용의 조달 어려웠기 때문인지 70전이라는 가격이 책정되었다. 이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성 스스로를 “灌頂師”로 일컫고, “覺”, “正土” 등 대각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또한 권미의 연기표기도 이전의 “佛紀”에서 “大覺紀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재판은 이후 발행되는 3판, 4판의 臺本이 되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유통되지 못하였는지 현재 국내에는 이 판이 가장 희귀하다.

다섯째, 1937년 10월 30일에 大東에서 3판을 인쇄하였다. 3판은 몇 곳에서 재판과 문자의 異同이 있으나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제37과목 제명 중의 “誰當說”은 “誰當說法” 중에서 “法”자가 결락된 것이다. 또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이나 반야바라밀 등의 “밀”의 한자표기는 초판부터 재판까지는 “密”이었으나 이 3판부터 “蜜”로 바뀌었다. 현재 3판은 『용성대종사 전집』, 『백용성대종사총서』 그리고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에 수록되거나 탑재됨으로써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여섯째, 1939년 10월 10일에 안양암 주지 이태준과 신도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永興에서 4판을 인쇄하였다. 4판은 3판을 淨書하여 석인본으로 발행하였고, 5침선장본으로 장책하는 등 우리 전통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3판과는 단지 두 곳에서 차이가 있으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한 대본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신활자본. 초판. 서울: 삼장역회(한성도서 인쇄), 1924.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신활자본. 수정초판. 서울: 삼장역회(해영사 인쇄), 1926.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신활자본. 재판. 서울: 삼장역회(한성도서 인쇄), 1935.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신활자본. 3판. 서울: 삼장역회(대동 인쇄), 1937.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석인본. 4판. 서울: 삼장역회(영흥 인쇄), 1939.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경주]: [衆生寺], 1975.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서울: 대각회, 1996.
- 백상규(용성). 『상역과해금강경』. 장수군: 죽림정사, 2007.
- 백상규(용성). 『조선글화엄경』 열둘째권. 서울: 삼장역회, 1928.
- 백상규(용성). 『呑道는 覺』. 경성: 삼장역회, 1938.
- 백상규(용성). 『용성대종사 전집』 제5집. 서울: 신영사, 1991.
- 백상규(용성). 『백용성대종사총서』 제 3, 7, 12책. 서울: 동간행위원회, 2016.
- 김광식. 『용성: 한국의 고승 17』. 서울: 민족사, 1999.
- 김호귀. 『백용성의 금강경강의』. 파주: 어의운하, 2019.
- 이태준. 『朝夕持誦』. 목판본. 서울: 안양암, 1932.
- 한보광. 『용성선사연구』. 서울: 감로당, 1981.
- 『緣起法の 생활』: 죽림 제273호. 서울: 대각회 출판부, 2010.
-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SJ4743, SJ4744)』(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김광식. “백용성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 제3집(2000). 65-98.
- 고영섭. “일제강점기 제일 불교유학생들의 귀국 이후 동향 -불교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73집(2015). 291-339.
- 김치운. “운허의 『금강경』 한글 번역에 대하여.” 『대각사상』 제21집(2014). 37-68.
- 김호귀. “금강경번역의 제문제.” 『전자불전』 제15집(2013). 1-30.
- 박재현. “일제강점기 ‘독립’의 한 의미: 백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제38호(2014). 109-136.
- 윤점열(지원). “용성선사역해 금강경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15.6.
- 이수창(마성). “백용성의 금강경에 대한 이해.” 『전자불전』 제19집(2017). 1-24.
- 이수창(마성). “용성 진종의 승단개혁운동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제18집(2016). 1-31.
- 이영자. “용성해 상역과해금강경에 대하여: 육조해의와 비교고찰.” 『불교학보』 제11집(1974). 215-219.
- 鄭京淑(了竟). “대한불교조계종표준본 『금강경』 연구: 한문교감과 한글 번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조기룡. “용성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관점의 분석.” 『불교학보』 제75집(2016). 259-284.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제5집(2002). 89-128.

한보광.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1).” 『대각사상』 제3집(2000). 9-64.

『대각사상연구원』 (<http://www.taegak.or.kr/>).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시스템』 (<http://kabc.dongguk.edu/>).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 sanggyu. 1924.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first edition. Seoul: Samjang-yeokhoe.

Baek, sanggyu. 1926.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first revised edition. Seoul: Samjang-yeokhoe.

Baek, sanggyu. 1928. *The Hangul Translation of Avatamska Sutra*. v.12. Seoul: Samjang-yeokhoe.

Baek, sanggyu. 1935.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second edition. Seoul: Samjang-yeokhoe.

Baek, sanggyu. 1937.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third edition. Seoul: Samjang-yeokhoe.

Baek, sanggyu. 1938. *My Religious beliefs is “Kak”*. Seoul: Samjang-yeokhoe.

Baek, sanggyu. 1939.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fourth edition. Seoul: Samjang-yeokhoe.

Baek, sanggyu. 1975. *Sangyeokgwahae-Geumganggyeong*. fifth edition. Gyeongju: Joongsaeng-temple.

Baek, sanggyu. 1991. *The complete works of the grater master, venerable Yong-seong*. v.5. Seoul: Sinyoung-sa.

Baek, sanggyu. 2016. *A series of the grater master, venerable Baek Yong-seong*. v.3, 7, 12. Seoul: Publication Committee.

Cho, Ki-Ryong. 2016. “Analysis of Yongsung from a Transforming Leadership Perspective.” *BUL GYO HAK BO*, 75: 259-284.

Han, Bo-kwang. 1981. *A Study on the Zen master Yong-seong*. Seoul: Gamrodang.

Han, Bo-kwang. 2002. “Ven. Baek Yong-sung’s activity for translating Buddhist Scriptures and Its Meaning.” *Journal of Maha Bodhi Thought*, 5: 89-128.

Jung, Kyoung-Sook(Ven. LyoKyoung). 2010. *Astudy on the standard text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 sūtra』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mainly on the Chinese text comparison and analysis and the Hangul text transla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Kim, Chi-on. 2014. "On Un-hea's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Diamond Sutra." *Journal of Maha Bodhi Thought*, 21: 37-68.

Kim, Gwang-sik. 1999. *Yong-seong: Buddhist Monks in Korea 17*. Seoul: Minjoksa.

Kim, Ho-Gui. 2013. "Matters about translation of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sūtra." *Journal of Electronic Buddhist texts*, 15: 1-30.

Kim, Ho-Gui. 2019. *Baek Yong-seong's Lectures of Vajracchedika Prajnaparamita-sutra*. Paju: Euo, Eouiunha.

Ko, Young-Seop. 2015. "A Study on the Trend after Return Home of Buddhist Students Studying in Japa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the Scholars for Buddhist Studie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73: 291-339.

Lee, Soo-chang(Maseong). 2016. "On Yongseong Jinjong's Buddhist Saṅgha Reformation Movement - with a Focus on the Temporal Circumstances." *Journal of Electronic Buddhist texts*, 18. 1-31.

Lee, Soo-Chang(Ma-Seong). 2017. "Baek Yong-seong's Understanding of 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sūtra." *Journal of Electronic Buddhist texts*, 19: 1-24.

Lee, Tae-jun. 1932. *Joseokjiyong*. Seoul: Anyangam.

Life of Pratityasamutpada theory. 2010. Seoul: Publishing division of Taegak-hoe.

Park, Jae-Hyeon. 2014. "The meaning of 'Independence' in the era of the Japan colonial period: through the Baek Yong Seong's approach." *Journal of Korean Seon Studies*, 38: 109-136.

『The card of target Korean persons made by the Japanese Empire(SJ4743, SJ4744)』. 1920-194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Collection)

Yoon, Jum-youl(Ji-won). 2015. *A study on translation of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by Yongsung-Jinjong zen-master*.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